

“여수해양청 여천·광양사무소 유지해달라”

항만공사 설립에 폐쇄땐 산단 민원 업무 큰 불편

상의·시민단체, 정부·지역 국회의원에 존치 건의

오는 8월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 상공회의소와 4개 시민단체들이 여수 지방해양청 여천·광양 항해사무소 존치와 인력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여수지역 발전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 시민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7일 행정안전부와 김충조, 김성곤, 주승용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따라 폐쇄될 것으로 알려진

현 여수해양항만청 산하 여천과 광양 등 2곳 해양사무소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내용의 ‘여수·광양 항만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조직재편과 관련, 업무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의 조직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축소 예정”이라며 “여수 지방해양항만청 인력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동하더라도 법에 정한 국

가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수·광양항만사무소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의 특수성이 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안전에 관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여수 세계박람회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량 증가에 맞는 조직과 인력 대책은 없다”며 “항만과 항로 안전 등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업무에 맞게 강화해 주고 여수·광양 항만의 조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고서 수집 연구가 서수열 선생

고향 광양에 도서 2559점 기증

광양출신 고서 수집가가 고향 도서관에 평생에 걸쳐 수집한 도서 2500여권을 기증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진상면 출신 고서 수집 연구가 서수열(78·광주시 화정동)씨가 시, 소설, 수필류 등 도서 2559점을 광양 시립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서씨가 기증한 자료는 이은상 난중 일기(1968)·한국미술전집 전 15권(1975)·조선 상고민족사·한국철학사·고조선 연구 등 역사·철학사와 초판본 현대시집 등 총 2559점이다.

서 씨는 40여년동안 수집해온 도서



3만여권 가운데 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도서를 선별, 기증했다. 서수열 씨는 “책은 누군가에 읽히고 쓰일 때 더욱 가치가 있다”며 “그동안 모은 책들을 고향 도서관에 기증하게 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7일 서수열씨에게 도서기증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 삼베 제작 재연 지난 2일 보성군과 보성삼베랑이 주최한 ‘보성 전통삼베 촬영대회’에서 주민들이 물레잣기 등 삼베 제작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보성삼베는 지난 2008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제’ 제45호로 등록됐다. <보성군 제공>

소통·화합으로 박람회 대비할 것

김재병 여수경찰서장



“내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비 한 안전대책 철저와 국민의 경찰,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 당당하고 멋있는 경찰로 주민 중심의 치안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5일 취임한 김재병(55) 여수경찰서장은 “국민생활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만족 치안서비스와 인권보호, 업무혁신과 활기찬 경찰문화 창달을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며 “특히 말보

다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 출신인 김 서장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경찰간부후보 31기로 임관해 목포경찰서장, 영암경찰서장, 전남 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범죄와의 전쟁’ 민생치안 주력

정성기 순천경찰서장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순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겠습 니다.”

지난 5일 취임한 정성기(59) 순천경찰서 서장은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만족’ 치안행정을 펼치고,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총기자 ejkim@

문대학을 졸업하고 1977 년 순경으로 입문한 뒤 전 북경경찰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무안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희자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보성군 제공>

민선 5기 1년

박병종 고흥군수

“산업기반 늘려 삶의 질 개선”



“지금까지는 ‘고흥성공’이라는 큰 틀에서 열악했던 지역의 산업적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 왔다면, 이제부터는 농·수산업 비중이 55%를 차지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군민 개인에 대한 소득향상 방안 마련과 실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민선 5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군청 정문 앞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직접 나눠줬다.

박 군수는 가장 큰 성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할 공장용지 확충과 투자(기업) 가치화에 두었다.

국내 최고 농수산물 가공·유통 단지로 육성하고자 조성해 온 ‘동강농공단지’와 ‘고흥 산업형 특화 단지’는 조성을 마무리해 각각 7개 기업과 2개 기업이 입주했다. 우주항공·신소재 부품단지가 될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도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 임해수련원 건립도 2013년 완공계획으로 착실하게 진행중에 있다.

또한 고흥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몰라 보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고흥 친환경 쌀이 서울지역 8개 구청에 학교급식 쌀로 선정돼 연 370t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앞장

고소득 농어가 육성 추진

또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고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우주항공·연관시설·집적화를 통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도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2월에는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을 개관해 명실공히 우주과학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학연지식경제부의 ‘국가비행 종합시험센터’ 건립 거점지역 확정 등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탄

력이 붙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2011학년도 수능 결과 서울대·카이스트 등 일명 일류 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함과 아울러 성적 우수 중학생이 관내는 물론 관외에서도 진학하는 역유출 현상까지 보이는 등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의미있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현재 투자유치 기업 증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다수 선정, 지역 인지도 상승, 광역교통망 등 국책사업 내실 추진, 교육수준 향상 등 지역 경쟁력이 상당부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군수는 “앞으로 군민 대수를 차지하는 농·어가에 대한 소득향상 방안으로 ‘고흥 농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과 ‘고흥군 유통(주) 경영 전문화’에 주력하겠다”고 괴력했다.

‘고흥 농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1단계는 2014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5000만원 고소득 농어가 5000가구 육성 ▲농수산물 수출액 5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군수는 “높게 성공하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와 함께 군민과 함께 현장을 뛰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고흥 동초등학교 개교 100년주년 기념비 제막



고흥 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고흥 동초등학교(교장 박수돌)는 지난 6일 봉황관에서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동문, 가족, 재학생, 학교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을 비롯해 기념식, 재학생들의 작은 음악회 등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6회 졸업생인 동우작가 고 목일신 선생을 대신해 친족인 목원숙 등문에게 ‘자랑스러운 고흥 동초등인파’를 수여했다. 특히 기념식에 앞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기념사진, 30년 후 자신들의 자화상 등을 그려보는 산문 등을 넣은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가 열렸다. 타

입술은 30년 후인 2041년 개교 기념일에 개봉된다.

한편 고흥 동초등학교는 지난 1911년 ‘흥양 보통학교’로 개교한 후 지금까지 1만9888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 등록 : 41-0163369호

• 본 광고물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대인동 소방서간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층](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화관 옆 건물) 또는 (자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금주의 추첨 불건 대표이사 010-7570-7525

금주의 추첨